

‘가나다 전화’ 질의 응답

질문 ‘○○난’, ‘○○란’등에서 ‘난’과 ‘란’의 쓰임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순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답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4]에서 “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하여 ‘역이용(逆利用)’,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등을 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는 ‘한자어+한자어’로 된 것들이어서 ‘고유어+한자어’로 된 것에 대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한글 맞춤법 해설’에 따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는 ‘개-연(-蓮)’, ‘구름-양(-量)’, ‘숫-용(-龍)’ 등입니다.

또, ‘한글 맞춤법’ 제12항 [붙임 1]에서 “단어의 첫소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하여 그 예로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가정란’인데 [붙임 1]은 결국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혹자는 ‘릉(陵)’과 ‘란(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능’, ‘난’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왕릉(王陵)’, ‘정릉(貞陵)’처럼 쓰이는 ‘릉’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하나의 단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강릉(江陵)',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 '학습란(學習欄)' 등의 예를 여기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어+한자어'의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하여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처럼 고유어나 (구미)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개-연', '구름-양'의 경우와 같이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어+欄'은 그 '欄'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란'으로 적어야 하고 '고유어(또는 외래어)+欄'은 그 '欄'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난'으로 적어야 맞는 것입니다. (전수태)

㉠ '스물여섯', '서른여섯' 등은 '스물'과 '여섯', '서른'과 '여섯'을 붙여 써야 하는지 띄어 써야 하는지 가르켜 주십시오.
(문채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단위로 띄어 쓴다." 하고 규정하고 '십이억 삼천오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과 '12억 3456만 7898'을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잘게 갈라 놓으면 의미 파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여 써야 할 터인데 어떻게 붙일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표기할 때처럼 세 자리 단위로 띄어서 '십 이억삼천사백 오십육만칠천 육백구십팔(1,234,567,698)'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식 숫자 헤아리는 방식대로 '만, 억, 조...' 단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와 같은 방식은 '십'과 '이억', '사백'과 '오십육만'이 떨어져야 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제44항의 규정처럼 한 것입니다. 다만, 금액을 적을 때에는 변조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일금: 오십오만팔천이백구십육원정

돈 : 일백삼십팔만칠천원임

등으로 붙여 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해설' 제43항에서 '이십칠대', '구십삼차' 등으로 '대', '차' 등의 앞 수를 붙여 쓴 것이나 '표준어 규정' 제6항에서 서수사에 대한 표준어를

‘열두째(제12)’, ‘스물두째(제22)’, ‘열둘째(제12개)’, ‘스물둘째(제22개)’, 등으로 언급하면서 ‘-째’의 앞부분의 수를 붙여 쓴 것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물여섯’, ‘서른여섯’은 당연히 붙여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표준어 규정’ 제29항 [붙임 2]와 ‘표준어 규정 해설’ 제29항 [붙임 2]에서 표준 발음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스물 여섯’, ‘서른 여섯’ 등으로 띄어 쓰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로 보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수태)

☞ 신문 기사에서 보면 기념일의 한자 표기가 ‘紀念日’도 있고 ‘紀念日’도 있습니다. 이것은 표기의 혼란이 아닌지요?

(최정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 표기입니다.

그 표기의 문제는 사전을 만드는 사람을 계속 괴롭혀 온 문제입니다. 근대적 국어 사전의 효시로 꼽히는 문세영의 ‘우리말 辭典’(초판 1938, 7판 1954)에서 ‘기념일(紀念日), 기념(紀念・記念)’으로 올린 이래, ‘큰사전’(1947~1957)에서는 ‘기념일(紀念日), 기념(紀念), 기념(記念)’으로 하여 기념일의 표기가 ‘紀念日’로 정착되는 듯하다가,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초판 1961, 수정증보 1982)에서 ‘기념일(記念日, 紀念日), 기념(記念), 기념(紀念)’으로, 북한의 ‘조선말사전’(1962)에서는 ‘기념일(紀念日, 記念日), 기념(紀念, 記念)’으로, 신기철·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사전’(증보 1975)에서는 ‘기념일(一一日), 기념(紀念, 記念)’으로 되어 기념일의 표기가 ‘紀念日, 記念日’ 양쪽이 다 인정되도록 되었다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에서는 ‘기념일(記念日), 기념(記念, 紀念)’으로,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1)에서는 ‘기념일(紀念日), 기념(記念, 紀念)’으로 되어 기념일의 표기가 어느 한편으로만 되도록 되어 있어서, 신문의 기사를 쓰는 사람은 어느 사전을 참조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 쓰는 이의 표기상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표로 만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대 이전		60~80년대		90년대	
기념	문세영 편	큰사전	이회승 편	조선말사전	금성판	한국학회편
	紀念, 記念	1. 紀念 2. 記念	1. 記念 2. 記念	紀念, 記念	記念, 紀念	記念, 紀念
기념일	紀念日	紀念日	記念日, 紀念日	紀念日, 記念日	記念日	紀念日

두 표기의 차이를 가져 오는 두 한자를 살펴보면, 중국 司馬遷의 ‘史記’라는 책의 帝王의 일을 적은 ‘本紀’, 이를 본딴 우리 나라 ‘三國史記’ 속의 ‘本紀’ 등의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구별은 있습니다만, 중국 ‘釋名’의 ‘釋言語’편에 ‘紀, 記也’라는 기술과, 같은 책 ‘釋典藝’편의 ‘記, 紀也’라는 기술에서 보듯이 ‘적는다’는 의미에서 두 글자가 통하여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낱말은 한자어이므로 그 역사적 쓰임을 살펴보면, ‘記念’의 경우는, 중국 당나라 초기 張文成(657~730)의 작품이라고 하는 ‘遊仙窟’에 쓰인 예가 가장 오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紀念’의 경우는 역사적 표기를 보이는 전거는 어느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자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의 대조적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20세기초에는 ‘紀念’이라는 표기도 있었지만, 권위있는 한자 사전이라는 ‘大漢和辭典’에서 ‘紀念’을 ‘記念’의 잘못으로 처리한 이후, 그 뒤의 국어 사전에서는 모두 ‘記念’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그 합성어도 모두 ‘記念—’으로 적고 있으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記念燈, 記念碑, 記念寫眞, 記念像, 記念式, 記念葉書, 記念日, 記念章, 記念切手(기념우표), 記念祭, 記念塔, 記念品…’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타이완)에서는 ‘記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올려 놓기는 하였지만, 실제 쓰임에서는 ‘紀念’이라는 표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紀念, 紀念日, 紀念週, 紀念冊, 紀念品, 紀念會’ 등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표기의 낱말만이 ‘漢文大辭典’(일본의 ‘大漢和辭典’을 그대로 번역하였다고 하는)에 올라 있을 뿐입니다.

‘기념일’은 ‘기념’과 ‘일’의 복합어이므로, 일단 ‘기념’의 표기가 결정되면 그 표기가 자연스럽게 결정되겠습니다. ‘기념’의 경우 한자 ‘記’와 ‘紀’가 별개의 글자이면서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 ‘記念’, ‘紀念’이 다 쓰이는 것이므로, 비록, 역사적 전거는 ‘記念’만 있으나, 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漢字의 미세한 뜻의 차이는 무시하는 것입니다만, 마치 표준말에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과 같

습니다. 따라서 복합어인 '기념일'을 비롯하여 '기념사, 기념비, 기념품 ...' 등의 표기도 복수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실제로 글 쓰는 이가 표기하고자 할 때, 어느 것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표현적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즘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문서 작성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의 한자 단어 변환에 '記念 紀念, 紀念款(館의 잘못된 듯), 記念物, 記念碑, 記念辭, 記念像, 記念式, 記念日, 記念章, 記念祭, 記念塔, 紀念品, 記念號'처럼 어느 한 쪽만의 표기가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인선)

☞ 회사에서 직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교육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연수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두 단어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김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먼저 '교육'과 '연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부여하고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좁은 뜻으로는 학교 교육만을 가리키기도 함.'(금성관 '국어대사전', 1991)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식과 기술들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일.'(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1992)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성숙한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심신의 모든 성능을 발육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미치는 영향. 곧 피교육자의 지식·이해·태도를 기르고 생활을 발전시키며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의 육성 과정임. 그 작용의 주체로 보아 가정 교육, 사회 교육, 학교 교육 등이 있음.'(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1982)으로 뜻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수'는 '(학업 등을) 연구하고 닦는 것'으로(금성관 '국어대사전'),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으로, '연구하고 닦음'(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으로 유사한 뜻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통해 알아 보면 '교육원'은 '평생교육원, 두뇌개발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을 들 수 있고, '연수원'은 '세무경리연수원, 사법연수원, 한국무역연수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뜻풀이와 용례를 종합해 볼 때, '교육'과 '연수'의 어휘적 관계는 '교육'이

보편적이라면 '연수'는 전문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고, '교육'이 장기적인 기간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면 '연수'는 집중적이고 단기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이 학교 교육과 같은 제도 교육, 공교육(公教育)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연수'는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개념, 하위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교육'이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뚜렷하게 갖추고 있다면 '연수'는 타인의 가르침보다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차이를 생각하여 '교육원'이나 '연수원' 가운데 적절한 말을 골라 쓰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질문 은행에서 통장 거래를 할 때 쓰는 말 가운데 '계좌'와 '구좌'는 어떤 용어가 맞는 표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철우,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

답 '계좌(計座)'는 경제 용어로서 '계정 계좌(計定計座)'의 준말입니다. 예금 계좌란 뜻도 되는데 부기에서 계정(기업의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元帳]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마다 금액의 증감을 차변(借邊, 복식 부기에서 계정 계좌의 왼쪽에 있는 부분으로, 자산의 증가, 부채 또는 자본의 감소·손실 등을 기입함), 대변(貸邊, 복식 부기에서 장부의 계정 계좌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으로, 자산의 감소, 부채·자본의 증가 등을 기입함)으로 나누어 기록, 계산하는 자리를 말합니다(금성판 '국어대사전', 1991). 일명 '계정 자리'(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1992)라고도 합니다. 구좌는 '계좌의 구칭'(금성판 '국어대사전')이라고도 하고 '일본어에서 온 말'(한글학회 편)로 바른 말은 '계좌'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어 순화 면에서도('국어순화자료집', 국어연구소, 1988; '국어순화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1991) 구좌(口座)는 계좌로 순화할 순화 대상 용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좌'라는 말 대신에 '계좌'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옥순)